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5일 개막

류지현호, 한신과 3-3 무승부

이정후 등 빅리거 합류해 어제 日 프로팀과 평가전 오늘 오릭스와 마지막 평가전... 5일 체코와 첫 경기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평가전을 무승부로 마쳤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식 평가전 한신과 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대표팀은 3일 같은 장소에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른 뒤 5일 도쿄돔에서 체코를 상대로 WBC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 나선다.

WBC 조별리그 개막을 3일 앞두고 열린 공식 평가전에서 류지현 감독은 김도영(KIA 타이거즈)-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셰이 워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문보경(LG 트윈스)-안현민(KT 위즈)-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박동원-박해민(이상 LG)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선발 투수는 박민(두산 베어스)이었다.

한국은 1회 한신 선발 사이키 히로토를 상대로 매서운 공격력을 뽐냈다. 선두 타자 김도영의 3루 쪽 내야 안타와 이정후의 중전 안타로 만든 기회에서 문보경의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고, 이어 안현민이 좌익 선상 2루타를 때려 2-0을 만들었다.

그러나 박민이 2회 3실점 하며 경기 주도권을 한신에 내줬다.



2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평가전에서 5회초 김도영이 솔로홈런을 친 뒤 이정후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 5회초 1사 후 김도영의 동점 솔로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도영은 한신 세 번째 투수 하야카와 다이키의 초구를 공략해 좌중월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이후 두 팀은 서로 득점하지 못하며 3-3으로 경기가 끝났다.

대표팀은 선발 박민이 20닝 피안타 3개, 3실점으로 흔들렸으나 이후 노경은(SSG 랜더스), 손주영(LG), 고영표(KT), 류현진(한화), 박영현(KT), 김택연(두산)이 무실점 계투에 성공하며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제주SK FC가 홈에서 광주와 시즌 개막전을 벌였지만 0-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사진은 공격중인 이창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SK FC 2026 시즌 개막전 '승점 1점'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첫 경기 0-0 무승부

제주SK FC가 2026시즌 홈 개막전에서 수적 열세 끝에 선방하며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챙겼다.

제주SK는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는행 K리그 1 2026' 1라운드 광주FC와의 홈 개막전에서 0-0으로 비기면서 이날 데뷔전을 치른 세루지우 코스타 감독의 첫승에는 실패했다.

올 시즌 제주SK 감독으로 부임한 코스타 감독의 첫 최전방 선택은 남태희와 신상은이었다. 중원 브라질 네게바와 이탈로, 이창민, 권창훈, 수비는 김문성과 프랑수아 출신 191cm 세레스티, 김건웅, 유인

수, 골키퍼는 김동준을 내세웠다. 제주는 전반 초반부터 선제골을 가져오기 위해 광주를 압박했다. 결국 전반 초반 권창훈의 패스를 신상이이 쇄도하다 광주 골키퍼 정지훈에게 넘어지면서 PK가 선언됐다. 하지만 윤필드 리부 끝에 PK가 취소돼 선제골 기회가 사라져 아쉬움이 남았다. 게다가 전반 31분 이탈로가 광주의 공격을 막다 상대선수의 발목을 밟으면서 레드카드를 받아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를 치렀다. 코스타 감독은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자 후반 시작과 함께 남태

희 대신 장민규, 후반 16분 신상은과 권창훈을 빼고 김준하와 박창준을 투입했지만 선제골은 터지지 않았다. 경기는 0-0으로 헛심 공방만 벌이다 마무리되면서 제주는 광주전 5연패를 끊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이탈로가 퇴장당한 후에도 골을 내주지 않아 새로 영입한 센터백 세레스티의 위력을 보여줬다. 제주SK는 오는 8일 안양과의 원정경기로 2라운드를 치르고 15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이어 18일 울산(홈), 22일 강원(원정) 등 3월에만 5경기가 예정돼 있다.

제60회 제주도민체육대회 5월 8일 개막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주경기장서 개막식 서귀포 일원에서 3일간 51개 종목 열전

'도민 화합과 감동'을 담은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신진성)는 올해 도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도민체육대는 5월 8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건강한 체력, 경쟁과 협력, 화합과 진전'이라는 표어에 맞게 65개 경기장에서 3

일간 5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올해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열린다면서 서귀포 강창학구장이 전면적인 보수공사 등이 이뤄지면서 개막식 장소는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종합체전을 위해 체육인과 도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날 제주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 연출 대행 용역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미래를

여는 사람들, 함께 더 멀리, 놀라운 제주이유다'를 콘셉트로 대회 개회식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제주도민체육대회에 걸맞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서귀포시가 갖고있는 자연경관과 특성이 반영된 축제 분위기를 표출할 예정이다.

경기부분은 12종목(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씨름, 야구소프트볼,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민속경기)에서 읍·면·동대항 세부종목이 변경됐고 육상종목은 그동안 경쟁심에 의한 부상 위험이 큰 세부종목(400m계주, 800m계주)을 제외하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축마라톤(10km)을 편성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2026 JeKiss 제주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성료 정음AT 우승... 내년 중국대회 출전

4개국에서 42개팀 참가 11세부는 중국팀 우승

서 열린 대회 12세 이하부(U12) 상위플러에서 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정음AT는 대회 U12와 U11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중국 청두대회 티켓도 손에 넣었다. 중국 쑤저우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정음AT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귀포시 효돈축구공원에

서 열린 대회 12세 이하부(U12) 상위플러에서 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정음AT는 대회 U12와 U11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중국 청두대회 티켓도 손에 넣었다. 중국 쑤저우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U11은 상하이 상용이 결승전에서 FC스퀘어를 2-1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청두국제대회엔 준우승팀인 FC스퀘어가 출전권을 획득하는 행운을 안았다. 또 U10 결승전에선 폼나무FC가 프로FC를 4-0으로 제압하며 정상 등극에 성공했다. 한편 제주도축구협회(회장 윤일)가 주최하고, JeKiss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체육회, 서귀포시, 서귀포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 42개팀이 참가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오늘의 운세 3일. A horoscope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predicted fortunes for the day. Includes a small photo of the author, 김중상.